

건강백서 ⑬

얼굴

얼굴은 어느 부분보다 표피가 얇고 예민해서 외부 기상조건이나 내부상태 특히 감정의 표현까지 빨리 반영된다. 그것은 표제관이나 표제신경(表在神經)의 분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의학에서는 양양락(陽陽落)들이 안면에 산재한다고 표현했다. 동시에 모든 감각기의 총본산인 뇌수(腦髓)에 가장 근접해 있어서 가장 빠르게 보고와 전

본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원래 안색이 그런 사람은 관계치 않을 수도 있으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진단상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정색이 아닌 경우는 그런 질환을 가질 확률이 있으므로 유의함이 좋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말뚝을 부리는 여드름의 발생은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내분비 이상도 있고 체질적으로 지방을 표피로 좋아하는 특이한 체질로 인한 경우도 있다. 얼굴에 갑작스런 기운의 변



안색변화 심장·간장·신경등 이상 징후 중추성마비 난치예고...정밀진단 필요

달이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창백한 얼굴은 빈혈이나 호흡기 질환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경은색은 신기능(腎機能)의 부조(不調)나 말기적변을 가진 것처럼 나타내며 붉은색은 다혈질로 심정혈압(心脈血壓)을 갖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푸른색을 띠는 신경이 극도로 날카롭거나 간장계통의 질환을 가진 것으로, 누런 색조를 띠는 때는 소화기 계통의 부조를 보일 수 있어서 상대에게 근심을 줄 수 있고 실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지혜롭다. 클

하나 부분병이 오면 입이 벌어지고 눈이 덜 감기는 '백비중후군'이 온다. 소위 말하는 안면신경마비이다. 이 병은 치주염, 기타 전염병으로 인한 입과신경이나 타박으로 인한 신경장애로도 온다. 또 뇌혈관 손상으로도 오는 수가 있다. 중추성(中樞性)은 난치이고 다른 중환의 예고편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MRI등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국소 병적으로 오는 경우는 쉽게 호전되어 침치료를 무번에 호전되는 수가 있어 의외의 명의를 만들기도 한다.

운을 상 (한의학 박사)

아내의 정성과 부처님 가피 ③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급히 가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급히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려하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공속에서 들어갔던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었다.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을 보고 나와서 생각을 꼼꼼히 했다. 발을 잘 먹을 수 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인지 그날부터는 죽에 신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밥을 먹었는데도 속이 편한 것이 아닌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 꿈에서 본 스님께 고마움을 느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기는 짐은 도대체 어디를 백번 이상 올라가야 팔다리가 안 아프다는 건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소백산 꼭대기를 말살하시는 건지 궁금한 마음으로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때는 음력 11월이라 몹시 추운 때여서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왔다. 삼중 기도실 앞 구름 다리에서 불은 기도져 삼사명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걸어오는데 얼핏 걸으니 "적멸 보궁에 올라갔다 오면 땀이 많이 나와"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다. 그때 갑자기 지난밤 꿈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나 하고 물어 보았다.

"적멸 보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식당 뒤쪽으로 쪽 올라가면 길이 있는데 올라가면 큰 산소가 모셔져 있습니다. 삼보당에 계시면 천태종 1대 큰스님 산신인데 그곳이 적멸보궁입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간을 정해 놓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내 땀에는 부처님의 지광이를 질고 올라가도 한시간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삼십초씩 줄이면서 올라갔다. 하루는 집에서 주인사로 또 하루는 구인사에서 집으로 생강과 구기자 다린 약을 받아 넣어 끓여주고 다녔다. 그리고 매일 기도표를 한번씩 연장하며 나의 생활은 이런 식



그림 이준석

“하루 한 두갑씩 피우던 담배를 부처님 앞에서 금연맹세 삼배후 담배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으로 되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천태종 1대 큰스님 탄신일 며칠 전이었는데 짐수 실 근처를 지나다가 열외 보았다. 새로 오는 신도인 모양인데 벽에 모셔져 있는 사진을 보고 두손을 합장하여 공손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으로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 스님은 상월 원각 대조 사님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얼른 가서 참배를 드리고 보니 지난밤 꿈에 나타났던 바로 그 스님이 분명했

다.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저녁공양을 마치고 기도실에 가 보니 휴면에 관한 비디오테이프 보여주고 있었다. 부처님은 담배를 버릴 것을 약속하신다는 법문을 들었다. 정말 큰일이었다. 담배를 버섯이 하루 두갑씩 피우는 나는 그후로 그나마 하루 한갑으로 줄이게 되었다. 대조사님 탄신일이 되었다. 낮에는 보궁에 올라가는 신도들이 많아서 나같은 불구는 여러사람에게 걸리적 거리기만 한다. 그래서

오후 해질 무렵에 올라갔다. 보궁에 참배를 마치고 구룡굴로 전망대까지 넘어가 큰 소나무 밑에 쉬다가 금연인전 않지만 아무도 없어서 담배 한개피를 꺼내서 입에 물었다. 두어모금 빨았는데 갑자기 바위 뒤에서 "무엇하는 거냐"라며 고함을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옆서너살쯤 돼 보이는 남자 아이가 반말로 호통을 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벌벌 떨면서 땅에다 버리고 지팡이로 큰 다음 재빨리 물어보려 하였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손자뻘 밖에 안되는 아이가 너무 과잉하여 돌아보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다. 내려가는 길을 보아도 아무 흔적이 없었다.

이해 해가 지고 밤이 다가오는 듯 했다. 내려가던 중 첫번째 휴지통에 담배와 리터러를 버리고 정신없이 기도실까지 내려왔다. 아무리 생각해보아 이상했다. 이왕 인과우려 했으니 담배를 영영 피지 말자고 생각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다짐을 했다. "부처님 저

목영태 (경기도 안성군 죽산리)

◆ The man who is angry and bears hatred, who is wicked and hypocritical, who is deceitful,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화를 잘 내고 원한을 품으며, 간사하고 사악해서 남의 미덕을 닮아보고, 그릇된 소견으로 음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⑬

◆ 'whoever in this world harms living beings, whether once or twice born, and in whom there is no compassion for living beings,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ever destroys or lays siege to villages and towns, and is known as an enemy,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포위하여, 독재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Be it in the village or in the wood, whoever appropriates by theft what is the property of others and what has not been given,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남의 것을 주지도 않는데 훔치려는 생각으로 이를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appropriate (v) 적당하다
- *theft (n) 훔칠, 절도
- *property (n) 재산, 소유물 *harm (n) 원한, 중오
- *wicked (a) 사악한, 부도덕한
- *hypocritical (a) 위선자적인
- *harm (n) 해악, 해
- *whether A or B (A 문장 B 문장간)
- *compassion (n) 동정심
- *destroy (v) 파괴하다
- *lay (v) 놓다, 배치하다
- *siege (n) 포위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해외불교문화 다이제스트

神을 찾는 늑대 ④ 로버트 M. 피시그

파이드루스는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우 높은 예지를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예지를 일반적인 지식의 탐구에 쓰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특별한 목적을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 자신의 예지를 겨누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파이드루스에 관한 이야기는 보통 사람의 인생에서는 찾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더욱 그렇다. 이 이야기는 나와 그의 관계에 대한 회상이다.

파이드루스는 이미 열다섯 살때 대학의 과학과정 1년을 끝내고 생화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미적(美的)으로 무의미하며 정신적으로 과산성'인 과학의 합리적 경직성과 충동을 일으키고 대학을

떠나 표류하게 된다. 그는 물질의 고산성대가 아니라 마음의 고산성대에 오르려 한다. 그는 모세나 그리스도, 붓다와 선(禪)의 스승들, 플라톤과 노자, 데카르트, 후소, 제퍼슨과 같은 선구자들이 오르면 장엄한 아름다움을 지닌 마

서 현실과 화해할 길이 전무한 아픔이 있었다. 그는 이 귀신들의 음성과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마침내 정신이상이라고 할 자아의 착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당시 파이드루스는 질(質, Quality)을 탐구하고 있었다.

붓다의 지혜는 꽃 한송이에도 디지털 컴퓨터 회로에도 있다

을의 고산성대에 오르기 위해 등양과 서양의 정신적인 산맥을 기어올라 갔다. 파이드루스는 현대인들이 모세나 그리스도, 붓다, 플라톤, 데카르트와 같은 귀신들의 나직한 음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론에

그는 대학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있다. "질은 붓다의 과학적 현실이며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개인적인 체험의 정상(頂上)에서 질과 붓다의 형이상학적 상관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장관(壯觀)이



그림 삼민섭

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질에 대한 철학적 설명은 진(眞)인 동시에 위(偽)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그것이 철학적 설명이기 때문이다. 철학적 설명이란 분석의 과정이다. 즉 주어와 술어로 분해

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질이란 말은 주어와 술어로 갈라 놓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질이 너무 신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붓다의 지혜나 신성(神聖)함은 높은 신의 정상이나 아름다운 꽃송이에

도 갖지만 또한 디지털 컴퓨터의 회로와 모타사이클의 정동장치에도 깃들여 있다. 파이드루스가 이처럼 알 수 없는 소리를 지껄이며 넘어 빠진듯한 이상한 표정으로 살아가지 사람들은 그를 더욱 적대시했다. 적대시 당하는 그는 더욱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마침내는 사람들의 파이드루스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에 이르러서 마침내는 사상관찰재판소에서 영장이 발급되고 그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필자소개】 이국출생인 피시그는 '신을 찾는 늑대' (원제: 신과 모타사이클 수리기술)를 펴낸 이후 '영원'을 출간했다. 그는 중년 이후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원년 고려원에서 번역출간한 이 소설의 요약은 여자인 일지스님(수국사)이 맡았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이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히 높고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보급정보센터 부디피어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디피어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 사찰의 역사, 배움된 인물, 교유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 살의 현장, 신도와 일상으로 다가가기 알 것세 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 단군 기복절이 아니라 직물 수근으로 풀어낸 한 행사 촬영·중계
 - 고승법회, 교유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 법회·행사 기획·연출
 -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소 서울서촌영구신사동 22-1 광남빌딩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저녁) 02-305-9320
팩스 02-375-4143